

65회 전국과학전람회 참가 · 전원 입상

교원부 국무총리상 등 18작품 수상 광주 · 전남 과학교육 우수성 입증



전라남도과학교육원이 제65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교원부 국무총리상 등 참가자 전원 입상의 쾌거를 이뤄 전남 과학교육의 우수성을 전국에 드높였다. 12일 전남과학교육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하는 제65회 전국과학전람회의 전체 출품작(총 300점) 전시는 지난 10월 26일 성을 전국에 드높였다.

전남과학교육원은 이 대회에 총 18작품을 출품해 국무총리상 1, 최우수상 1, 특상 3, 우수상 8, 장려상 5 작품 등 참가자 전원이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교원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장후천(광영고) 교감, 오완수(목포입성초) 교사 팀의 작품은 '심해어류 철갑동어의 발광제어시스템 및 생균 기원에 관한 연구'로, 신종인 'Vibrio_uc'를 발견하고 심해생물의 발광 기작 및 활용 가치를 부각해 호평을 받았다. 또, 강순기(동백초) · 전선용(경호초) · 김명희(안성초) 교사 팀은 '침의 친환경 공정을 통한 소재개발 및 융합형 마을학교 프로그램 적용' 주제의 연구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김현철(정계남초) 교감, 라성민(광양중진초) 교사, 남우엘(광양마동초) 교사 팀은 '마름에 의한 물담쟁이의 서식 조건 및 물리적 환경 요인 분석' 주제로 특상을 받았다. 강승현(순천성동초) 교감, 강진선(광양백운초) 교사 팀은 '진비축의 생육 특성 및 에센셜 오일의 활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다.

학생부에서는 광양백운중 강지오·광양중등중 임지수 팀(지도교사 남우엘)이 '진땀은 왜 거꾸로 붙어서 먹이활동을 할까?'라는 주제로 진땀의 먹이활동 특성을

연구해 특상을 차지했다. 또한 광주교대목포부설초 박대호 · 윤도현 · 이유정 팀(지도교사 이정탁)도 '핑크풀리아 넌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니?'를 주제로 핑크풀리아의 생태계 환경 영향 및 사막화 방지 효과를 탐구해 특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아산초 황이진 · 김현준 팀(지도교사 박명식)의 6작품은 우수상을, 5작품은 장려상을 받는 등 참가자 전원 입상이라는 발군의 성적을 거뒀다.

전남과학교육원은 이번 과학전람회를 위해 2018년부터 과학작품연구계획서 공모 심사 및 연구지도 협의의 5차례, 도대표작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제학습 캠프와 현장 컨설팅 협의회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김경미 원장은 "이번 참가자 전원 입상으로 전남 과학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전국에 과시했다."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김없는 지원으로 과학의 생활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65회 전국과학전람회에는 전국 17개 시 · 도교육청 예산대회를 거쳐 학생부와 교원부 5개 부문(물리, 화학, 생물, 산업 및 에너지, 지구 및 환경) 300작품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이들 참가작에 대해 작품설명서 심사과 개인면담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

화순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

MOU업무협약식 성료

화순교육지원청은 11월 13일, 관내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화순축협 의 14곳 체험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화순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올해 신규 발굴한 체험처 15 곳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협약을 맺은 체험처는 중학교 1학년들의 자유학기제에 따른 직업 체험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각 기관은 교육기부 차원에서 학교 외의 매칭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꿈에 맞는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체험처

대표들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어 공동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체험처로서 긍지를 갖고 적극 참여하여 질 높은 체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최원식 교육장은 "지역의 체험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화순의 인재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을 위한 기반이다. 학생들 각자가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진로를 탐색하며 외의 매칭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오늘 협약한 직업체험처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휘국 교육감,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 응원 격려 글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응원하는 서한문을 광주 전체 고등학교에 송부하며 "광주 교육 가족 모두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광주의 자랑입니다."고 밝혔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서한문 발송과 함께 14일 아침 7시 30분 20번 고사장인 광덕 고등학교를 방문해 수험생 응원을 펼친다. 이후 오후 4시30분에는 26번 고사장인 상무고를 찾아 시

를 마친 수험생을 격려한다.

장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함도 우리 수험생들의 간절함을 꺾지는 못할 것이다"며 "여러분이 걸은 시간은 비록 서둘지만 의미 있고 느리지만 견고할 것이며, 힘겨웠지만 새로울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는 12일 오후 2시 광주시교육청에 도착해 고사장별로 분류된 후 밤 10시경 보관 장소가 봉인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수능일인 14일 새벽 5시까지 경찰과 함께 24시간 경비에 들어갔으며 당일 새벽 장 교육감이 직접 수능문답지 보관소 보안을 해제해 광주 38개 고사장 파견관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수능일에는 전체 초등학교와 광

주과학교, 광주체육중고, 자동화실비공고,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일부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전체 중 · 고등학교가 휴업할 예정이다. 중 · 고교 교직원들이 시험장 관리요원과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 초등학교는 등교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변경한다.

수능 시험은 14일 오전 8시10분 수험생 입실을 완료하고 8시40분부터 시작한다. 마지막 5교시는 오후 5시40분에 종료하며 경중 시각장에,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저녁 8시20분에 마지막 시험이 끝난다.

수능시험 성적은 12월 4일(수) 발표되며 성적통지표 외에도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도 가정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전남도교육청이 지난달부터 권역별로 실시중인 학부모 대상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부모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광양부두나호텔에서 전남 동부권 학부모와 학부모컨설턴트 4명을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기본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10월부터 전남 서부권 교육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과정은 유지숙(한국평화교육원) 강사를 초청해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올해 학생 생활지도의 발전적 대안으로서, 피해자 회복, 관계 회복,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증점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특히, 학교교육의 동반자인 학부모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 도입 배경과 개념, 가정에서의 실천 방안 등을 교육하고 있다.

서부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맞춰 학부모와 아버지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녁 7시에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고 있다. 중부권 교육은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나주시티호텔에서 주관(10시부터 16시까지)에 실시할 예정이다.

